

중국, 「스마트 항운 2030 행동계획」 본격 시동 2027년 스마트 선박 100척·국제 선진 수준 도달 목표

해당국가	중국	기관(기업)	교통운수부·공업화정보부· 국무원국자위·시장감독관리총국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물류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

□ 중국 교통운수부 등 4개 부처*가 「스마트 항운 2030 행동계획」에 따라 선박 자주화**를 중심으로 인프라 디지털화와 운행 제어 협동화를 결합한 수상 운송 체계 구축 추진

* 교통운수부·공업화정보부·국무원국자위(国资委)·시장감독관리총국. 2026년 2월 28일 공동 발표

** 선박 자주화(船舶自主化): 선박이 인공지능·센서·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항행·판단·제어하는 것. 완전 자율항행부터 원격 조종까지 단계적 수준으로 구분

- 2027년까지 1단계 목표로 인공지능과 항운 분야 전반에 걸친 융합을 실현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스마트 선박 100척 이상을 운영 추진
 - 3개 이상의 스마트 항운 종합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연해 남북 항선 등 5개 이상의 시범 항선 개선을 추진
 - 단거리 환적, 예인선 작업, 해협 운송, 야간 항행 등 10개 이상의 보급 가능한 스마트 항운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검증된 기술을 대규모로 적용
- 2030년까지 스마트 항운의 핵심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고, 계열화된 장비 시스템의 공급 능력을 갖춰 이 분야 기술수준이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응용 영역을 확대
 - 확보된 기술을 철도-수로 연계 운송과 강-바다 연계 운송 등 다식 연계 운송* 체계에 적용하여 물류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 도모

* 철도·도로·수로·항공 등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을 연계하여 환적 횟수를 줄여 물류 비용과 시간을 절감

□ 인프라 고도화 및 관리·감독 강화를 통해 통신·항법 시설을 보강하고 국제 스마트 해운 항로를 구축하여 국제 규범 제정을 주도해 나갈 방침

- 중국의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인 베이더우* 항법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상용 스마트 선박의 원격 조종 센터와 알고리즘·연산력 인프라 구축으로 운영 서비스 시설 강화
 - * 중국이 미국의 GPS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위성항법시스템으로 현재 전 세계 서비스 제공
 - 국산 위성 인터넷을 스마트 선박 시스템에 적용하고 VSAT*·VDES**·베이더우 단문 통신·5G 다채널 연결로 선박 통신의 범위와 품질 향상
 - * VSAT(Very Small Aperture Terminal): 소형 위성 안테나를 통한 위성통신 시스템. 원양 선박의 광대역 통신에 활용
 - ** VDES(VHF Data Exchange System): 선박 간·선박-육상 간 디지털 데이터 교환을 위한 초단파 통신 시스템
- 스마트 선박 검사 등록, 인원 배치 등 법규 체계를 정비하고 해상 자주 수면 선박 규칙* 등 국제 규칙의 제정 방향을 적극 주도할 방침
 - * 해상 자주 수면 선박 규칙(MASS Code,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) : 국제해사기구(IMO)에서 논의 중인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제 규범
 - 현재 스마트 선박에 대한 규정 부재로 스마트 선박 검사 등록, 인원 배치 자격 교육, 회사 관리, 통항 관리, 안전 감독, 비상 구조 등 8대 분야의 규정·제도를 신속히 제정하여 적용 추진

※ 출처 :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(2026.02.28), 「스마트 항운 2030 행동계획」 인쇄·발행에 관한 통지